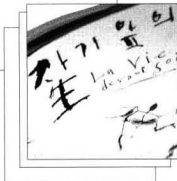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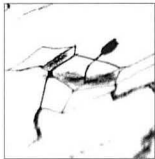




“누군가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 살 수 없다”

‘마음의 가족’ 로자부인과... 모모의... 서늘한... 아름다움...



가족이란 무엇일까, 가끔 의아해질 때가 있습니다. 피가 섞인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 사는 것, 그것이 가족인가? 굳게 문을 걸어 잠근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이 되면 서둘러 각자의 길로 뛰쳐나가 버리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진정으로 가족을 느끼고 있는지... 아침 식탁에서조차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는 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타인들은 아닐는지요. 몸 속에 같은 피가 흐르고, 같은 유전자, 같은 DNA를 가졌다 해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게 가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가족 이상으로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버린 사람들, 어린 모모와 로자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1975년 공쿠르상 수상작인 에밀 에자르의 《자기 앞의 생》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작품의 저자인 에밀 에자르는 로망가리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 설이 사실이라면 로망가리는 공쿠르상을 두 번 받은 유일한 작가가 되는 셈이지요.

이 소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할 말은 우리가 7층까지 걸어 올라가야만 하는 건물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육중한 체중을 오직 두 다리로 지탱하며 살아가는 로자부인에게 있어, 그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남달리 많은 근심 걱정 속에 살아온 그녀에게는 이미 몸에 익은 일상생활이 되어 버렸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만 호소할 뿐,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말하는 법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도 역시 별 수 없는 유태인이었





《자기앞의 생》 에밀 에자르 지음 | 용경식 옮김 | 문학동네 | 358쪽 | 값 9,000원

제는 늙고 병든 로자부인을 젊고 생기 도는 젊은 날의 로자부인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상상을 합니다.

한번 해서 실수를 하면, 즉 목소리가 때맞춰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렇게 되면 멋진 일이 일어난다. 모두가 뒷걸음질 치게 되는 일이.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서 자기 자리로 뒷걸음질 해서 되돌아온다. 단추 하나만 누르면, 모두 옛날로 돌아간다. 자동차들도 뒤로 굴러가고 개들도 뒤로 뛰어가고 산산조각이 났던 집들도 바로 내 눈앞에서 단번에 다시 모아져서 서게 된다. 총알은 시체에서 나와서 기관총 속으로 들어가고, 살인자들은 물러서서 창으로 뛰어 들어간다. 쏟아진 물이 다시 일어나 잔 속으로 채워져 들어간다. 흐르던 피도 다시 물 속으로 들어가고, 핏자국도 없어지고, 상처는 아물어 흔적도 없어진다.

침을 뱉으면 그 침이 다시 튀어 올라 뱉은 사람의 입 속으로 들어간다. 말들도 뒤로 달렸고 8층에서 떨어진 사나이도 살아나서 다시 8층으로 되돌아간다. 이것은 진짜 모든 것이 거꾸로 되는 세계였고, 내 거지 같은 생애에서 이처럼 멋진 일은 처음이었다. 한 순간 나는 젊고 생기 도는 로자부인의 날씬한 다리를 보는 것 같았다. 내가 좀더 그녀를 옛날로 되돌아가게 했더니, 그녀는 더욱 더 예뻐졌다. 그런 생각을 하니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러나 삶은, 자기 앞의 생은 영화처럼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로자부인은 숨을 거두고 맙니다. 혹시라도 유태인을 잡으러 올지 모른다고, 로자부인이 생전에 남몰래 지하에 만들어 놓은 대피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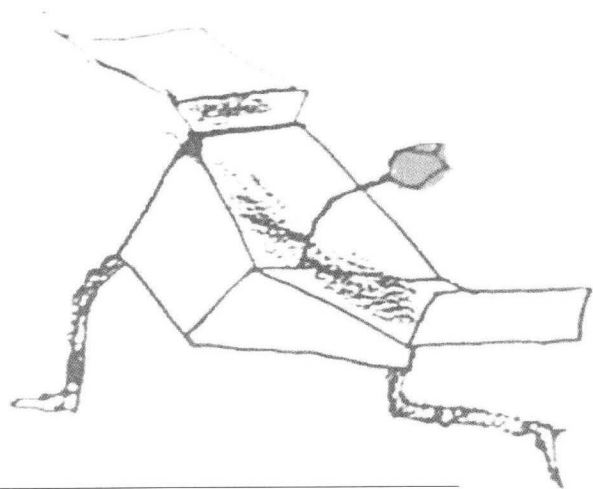
로자부인은 창녀였고 유태인이었고 그저 병든, 늙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늙고 병든 여자가 모모에게는 이 세상에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모모는 이 지하의 대피소에서 죽은 로자부인, 자신의 유일한 가족을 돌봅니다. 그녀는 이미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모모는 그녀에게 키스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로

자부인의 얼굴빛이 회색이나 푸르게 변했기 때문에 모모는 여기 저기 로자부인의 화장을 매번 고쳐주기도 합니다. 모모는 죽은 로자부인 옆의 매트에서 잠을 잡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바깥 세상에 나가기가 무섭기 때문이지요.

무관심이라는 두터운 휘장을 내건 채 서서히 사람의 온기를 잃어 가는, 현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어린 소년, 모모의 마지막 말 한 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노망이 들기 전에 하밀 할아버지가, 사람은 누군가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던 말이 옳은 것 같다. 사랑해야만 한다. 사랑해야만 한다...

모모의 이 한 마디 말이 지금 찬바람 휘몰아치는 거리를 서성이며 마음의 가족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눈처럼 하얗게 내려 앉기를 마음을 다해 소망해 봅니다. **후문**



이 글을 쓴 이명랑은 1997년 문학무크지 <새로운>에 시 <에피소프의 꽃>의 2편을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장편소설 <꽃을 던지고 싶다>, 연작소설집 <삼오식당>을 냈으며, 2002년 문예진흥원의 '내일을 여는 젊은 문학인 창작지원금'을 수혜했다. 현재 창작활동과 함께 중앙대학교 부속고등학교에서 문예교사활동을 하고 있다.